

“내 일상이 자산이 된다”
STO가 바꾸는 금융의 미래

2026.11.02

□ 모시는 글

2027년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STO) 시장이 내년 초 개화합니다.

STO는 디지털 금융의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혹자는 미래 금융으로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에 금융증권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STO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입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조각투자에서 출발한 토큰화는 이제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으로 영역을 넓히며 자본시장의 구조와 거래 방식을 바꾸어나가는 단계입니다. 자산 유동성 확대, 거래비용 절감, 투자 접근성 제고는 물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STO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STO 제도화와 관련해 2023년부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STO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4일 관련 법률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기술 혹은 제도의 도입은 항상 시장을 바꿔왔습니다. 내연기관의 발견은 마차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등장은 휴대폰 산업 경쟁구도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STO는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요.

아주경제는 11월 5일 증권포럼에서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STO 정책과 시장 동향, 디지털 자본시장의 기회와 과제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일시 : 11월 2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세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4:00~14:05	개회사	•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14:05~14:20	축사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14:20~15:00	기조강연	•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이사 - STO, 디지털금융의 미래가 바뀐다
15:00~15:10	Q&A	
15:10~15:20	휴식	
15:20~16:00	주제강연 I	• STO 시장의 성공 조건과 금융회사의 사업화 전략 - 발표자 : 백만용 블루어드 대표
16:00~16:10	Q&A	
16:10~16:20	휴식	
16:20~17:00	주제강연 II	• STO 개화, 금융투자 시장 어떻게 바뀔까? -발표자 :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서 총괄
17:00~17:10	Q&A	
17:10	폐회식	